시 론

출향 호남인의 창업과 기업가정신

김 일 태
전남대 연구석좌교수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를 인플레이션 압박과 금리 인상으로 내몰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은 당장에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으며 경기 둔화와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와는 동떨어진 정치적 계산에 열심이고 국회는 허송세월이다. 집권여당의 당 대표는 성상납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 중이며, 그 와중에서 핵관들 간의 권력 다툼은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도 전에 외교와 정책의 난맥상으로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아 20%대로 주저앉아 외신도 국정 동력을 회복할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한다. 야권은 어대명과 비명계 간 전당대회 당권 다툼이 한창이다. 여권과 관료들은 전 정권의 탓으로 새 정부가 빚만 받았다고 성토하고 있어 민생과 경제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들은 총수의 사면을 바라면서 새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또한 물려받은 대기업의 대표는 멸공을 외치면서도 대주주가 된 이후부터 발암물질 논란이 된 저가의 중국산 제품으로 매출만 올리는 이벤트를 벌려 소비자들을 분노시킨 엉터리 기업가정신으로 가득 차있다. 그러나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시장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영업실적 감소와 임대료 및 대출상황 부담으로 폐업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요즘 "새롭게 결합하고(혁신), 기회를 인지하고(가격차이, 구조적 결함을 파악하고), 기회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가하고,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창업활동"(창업혁신과 글로벌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재일동포기업가 김희수를 중심으로)을 하는 기업가들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둡고 고난의 시절에도 창업의 길을 걸은 기업가들이 있었다. 해방 전후로 도일한 일부 재일동포기업가들은 일본사회의 차별과 멸시를 이겨내고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창업에 매진하여 일본기업과의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성장했고 기업을 통해서 모국 발전에 공헌했다. 국내에서 해방 전후로 일부 기업가들은 잡화상의 상회에서 반도체까지,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조선업까지 혁신적 아이디어와 신용을 바탕으로 창업의 기업가정신을 실천해 굴지의 대기업의 초석을 마련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1962-66)이 시작된 이후 한국경제 성장과정에서 경부축 중심의 공업화 및 거점산업단지 전략으로 호남축은 산업노동자의 공급처로 심각한 이농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수도권과 영남권 등 타지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타지로 떠난 호남인구가 314만 명이 넘는 수치이고, 현재도 교육과 일자리를 해마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출향 호남인들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체의 창업에 도전해 한국과 해외에서 중견기업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이 상당수가 있다. 특히 해외 창업은 외항선박 선원으로 해외로 진출해 현지의 틈새시장을 개척하였고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상사의 주재원이나 청년층들의 유학과 인턴연수 등의 형태로 현지에 정착해 창업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그렇지만 그들의 창업과 성장 과정은 험로였다. 말 그대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금지원 등의 창업생태계가 척박한 맨 땅의 타지에서 기술과 거래처와의 신용을 토대로 성공의 신화를 만든 것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창업으로 자수성가를 이룬 호남 출향 기업가들이 있다. 그들은 유통매장 '에이산 면세점'의 장영식, ㈜ 이동재팬의 김효섭, 테크노피아의 박재세, 국제익스프레스의 나승도 대표 등이다. 그들은 마이너리티 이주민 집단으로 구성된 디아스포라경제의 주역이다. 일본 현지사회에서 취업차별과 열악한 사회적네트워크에서도 창업에 뛰어들었고 현지인 기업가의 신뢰와 고객가치의 우선으로 틈새시장의 사업을 성공시킨 기업가정신이 돋보인다.

지금의 기업의 창업과 수성은 기술발전 속도나 틈새시장의 감소 등으로 쉽지 않는 도전일 것이다. 그래도 어두운 일제 강점기에도, 소외된 근대화의 과정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해외 자유화이후에도, 꾸준하게 새로운 시장 개척과 틈새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창업하여 기업을 일군 호남 출향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을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 고

'다산 학자' 박석무의 뚝심

이 재 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

'다산 학자' 박석무 선생의 '풀어쓰는 다산 이야기'가 1천200회를 맞았다.

대단한 뚝심과 끈기다. 다산 정약용 사상의 DNA는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박석무라는 걸출한 학자를 통해 복제되고,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다산 전문가'다. 500여권이 넘는 저술과 2천700여편의 시 등에 담긴 다산의 방대한 사상은 그를 통해 오늘날 대중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글은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다. 다산 사상체계의 핵심을 잘 소화해 오늘의 언어로 매우 쉽게 풀어쓰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그의 노력은 미래세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치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가 사어가 됐듯이 '한자' 언어가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중국에서 마저도 간자를 사용하다보니 더욱 접할 기회가 없다. 요즘 젊은이들은 한자를 영어보다 훨씬 어려운 외국어의 하나로 인식한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긴 값진 저작물들은 전부 한자로 돼 있다. 전통사상의 몰이해는 언어의 단절에서 비롯된다. 박석무의 글은 '언어 단절'의 강을 훌쩍 뛰어넘어 다산 사상의 정수를 미래세대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강진에서 18년간이라는 긴 유배생활 중 수 많은 책들을 집필하는 동안 다산을 가장 괴롭혔던 생각은 바로 이점이었다. 자신이 쓴 책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읽혀질까 하는 염려였다고 한다. 이런 생각은 다산이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절절하게 담겨 있다.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람 때문이다. 유배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세상의 이치와 공직자의 윤리, 농지제도 개혁방안, 형법 등 경세에 관한 책들을 쓴 다산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런 생각이 더욱 간절했을 법하다.

다산이 박석무라는 후대의 학자를 만나면서 이런 우려는 말끔히 사라지게 됐다. 그의 글은 18년간 지속적으로 36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되면서 우리 지성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이메일을 열면 '받은 편지'에 배달되어 있는 다산이야기를 가급적 빠트리지 않고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혼란스런 사회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다산의 깊은 사유를 이렇듯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경세가(經世家)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개혁정신과 인간 사랑의 정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철학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승화시켜 보다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004년 6월 다산연구소가 출범할 때 박석무 이사장이 쓴 인사말이다. 이달 1일 1천2백 회째를 맞아 쓴 박 이사장 글의 제목은 '다시 공렴(公廉)의 세상을 희구하며'이다. 그동안 정권이 5번이나 바뀌고,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5천 달러에 이르는 경제강국으로 크게 변했지만 그동안 쓴 1천199번의 칼럼 속에서 전하는 핵심메시지는 일관되게 『목민심서』에 담겨 있는 '공직자의 공정과 청렴'이다.

다산의 시선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는 그의 언어에서는 자못 준열함이 느껴진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던 정권 또한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청렴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선거에 승리한 새 정권 역시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산이 오랜 유배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선 말기 부패한 사회를 개조하려는 정조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한 핵심 사상가이자 실천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은 '황사영 백서사건'(1801년) 연루설 때문이었다. 그 사건은 김훈의 소설 '흑산'에 잘 묘사돼 있다. 당시 막 조선에 들어온 천주교에 대한 성리학자들의 박해는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잔혹했다. 황사영이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천주교를 접했던 시기는 프랑스 혁명(1789년)의 진행기였다. 천주교가 당시 조선에서 참혹하게 배척된 것은 단지 성리학과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천주교를 통한 유럽 대륙의 혁명적 기운이 부패한 봉건사회의 관료들, 특히 당시 정권을 뒤흔들고 있었던 노론을 중심으로 한 골수 성리학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혁신적인 사상이 대중과 만나면 큰 사회 변화를 가져온다. 박석무 이사장이 젊은 시절부터 다산의 저작물에 주목했고, 평생 대중화에 매진해온 것은 다산 사상의 혁신성이 대중과 만났을 때 가져올 변화에 대한 꿈이 아니었을까?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요즘은 장마도 어느덧 지나가고 연일 폭염주의보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뿐인 여름휴가를 보낼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들떠있다.

문제는 우리가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미리 점검하고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여름휴가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알아보자.

첫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중지하자. 운전 중 잠깐 메시지나 SNS를 확인한다며 휴대전화를 보거나 통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잠깐일지 몰라도 휴대전화 사용은 차량 주변을 제대로 살필 수 없어 옆 차선이나 중앙선을 넘어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에 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하자.

둘째, 렌터카 이용 시 항상 조심하자. 운전자들의 운전 경력 정도와는 무관하게 렌터카는 평소 내가 운전을 하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어색하고 조작법도 익숙하지 않다.

여행지도 익숙한 생활권이 아니여서 도로 사정이나 주변 환경들이 낯설게 느껴진다. 여행 전 충분히 운전연습을 해보고 여행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습득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자. 휴가지에서 한잔 두잔 마시다보면 판단력이 흐려져 대수롭지 않게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져 본인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넷째,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하자. 비슷한 환경의 도로를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졸음으로 이어져 상황 판단이 흐려진다.

더운 여름철 장시간 차량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면 차량 내부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면서 졸음으로 이어진다. 운전 중 졸음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주변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언급한 내용을 잘 숙지해 행복한 기억들이 가득한 안전한 여름휴가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김정원·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광주·전남 尹정부 첫 국비 확보 사활 걸어야

광주시가 2023년 예산으로 요청한 국비(당초 계획기준)는 417건 3조6천52억원(신규 103건 2천640억, 계속 314건 3조3천412억) 규모이며, 전남도의 경우 375건 3조1천530억원(신규 110건 2천530억, 계속 265건 2조9천억)에 달한다.

강기정 시장은 이달초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국산 AI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 제3순환 고속도로망 도로 개설 등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을 만나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해결과 국비 협조를 요구했다.

기재부가 정부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이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강 시장과 김 지사를 비롯해 전방위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이 누락되거나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방침을 천명했고 실제 편성 기조도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심의가 시작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기재부 설득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민선8기 취임 첫 해부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사상 최악의 고물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돼 씀씀이가 더 커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다.

오는 12월 확정 시점까지 모든 채널을 가동,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정부는 재정 허리띠를 바짝 죌 태세다. 지출의 10%, 10조-12조원 정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 방향에 맞게 지역 특색을 잘 살려 살림살이를 짜야 할 것이다. 매우 어려운 사정이나 사활을 걸어야 한다.

문화로 소통하는 동구 '충장22'의 성공 사례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며 창작에 전념하는 레지던시 공간인 '충장22'가 주목받고 있다. 작가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주거 및 작업실이 22개, 도로명 주소가 22번길이라는 점에 착안해 명명된 충장22는 사업비 73억원을 들여 연 면적 1천883㎡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레지던시 독립실 22개, 다목적 전시장 등으로 꾸며졌다.

옛 간장공장 건물을 리모델링,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난 2020년 5월에 개관했으며 지난 2년여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공실률은 0%를 기록하고 있다. 충장로 4, 5가 뷰티산업 및 명인 명장들과 협동 프로그램,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문화재단·비엔날레 등과 연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 창작 레지던스 사업이 진행됐다. 특히 지역민과 만나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이용하기 편리한 문화플랫폼으로 한층 풍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홈페이지는 충장22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충장22는 증축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8월부터 '도심 속 힐링 예술 아카데미 S.O.S', '10월의 어느 멋진 날 충장22', '온라인 상설 버스킹 충장 비긴어게인' 등을 추진한다.

광주 동구는 낡고 오래된 구도심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활발한 도시재생에 힘입어 인구 10만명 회복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찾고 싶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중단 없는 변화와 발전으로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 가장 재미있는 '펀시티(Fun City)'로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문을 연 충장22는 충장로 상권과 연계한 협동 프로그램 개발,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을 개최하는 등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운영해왔다. 작가와 크리에이터, 청년 문화기획자 등 20여명이 입주해 상시 거주하며 주민·상인이 함께 문화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산실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충장22는 민·관이 함께 손잡고 충장로 4, 5가의 명성을 되찾는 문화거점으로 성공시킨 대표 사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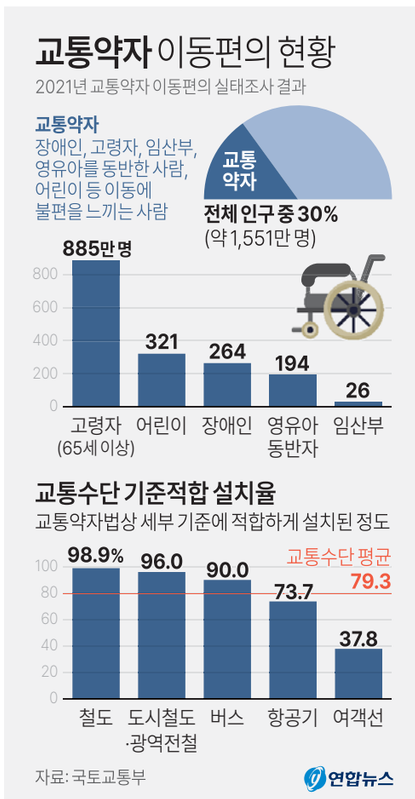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국민 10명 중 3명 '교통약자'…57.1%는 고령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로 실시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5년마다 전국 단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약 5천164만명의 30%인 약 1천551만명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3명이 교통약자인 셈이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한다. 교통약자 수는 이전 조사인 2016년 1천471만명 대비 약 80만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명으로 0.1% 감소했지만, 교통약자 수는 약 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명으로 57.1%를 차지했다. 어린이 321만명(20.7%), 장애인 264만명(17.1%), 영유아 동반자 194만명(12.5%), 임산부 26만명(1.7%) 등이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휠체어 승강 설비, 점자블록 등의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교통약자법상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은 77.3%로 조사됐다. 2016년보다 4.8%p(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